

# 변화의 기점에 서있는 '대학신문'

## 기획특집 전국 대학생 대학신문 인식도 설문조사

서강대학교와 더불어 계속되는 대학언론 팀업속에서 전대기업을 학생들의 대학신문에 대한 관심도와 편집자권 논의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대학신문 위상의 재정립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와 분석을 게재한다.

전국적으로 매주 2백50만부가 제작되는 대학신문, 1947년 중대신문, 고대신문을 출발로 속속 창간된 대학신문은 갈수록 4년, 통계를 10년으로 역사가 갖고 있다. 오랜 역사를 경험한 대학신문은 많은 변화와 겪어왔다.

창간 당시 학생소식과 학내의 홍보용으로 이용했던 대학신문은 4-19, 87년 6월 학생 등역사의 격변기를 경험하면서 학내외 국민화되었던 시점에서 학내외 대사회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변화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열정을 담아내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80년대를 넘어서는 대학신문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모해 오고 있다. 변화가 진행중일 때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는 대학신문 기자들의 임직에서 보면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이하 전대기련)은 현재 대학신문에 대한 독자층의 의견을 듣고 대학신문의 최대정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편집자권 문제에 대한 독자층의 관심을 들어 이후 대학신문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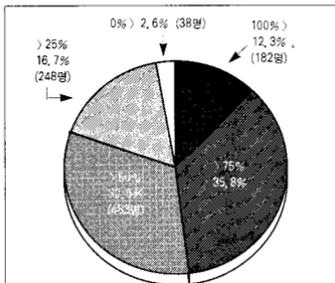
대학신문의 주요독자인 대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이 설문조사는 전대기련에서 8월초에 기획되어 9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5백부를 전국적으로 배포(서울, 경기-인천, 충청, 호남, 부산, 경북-경남, 강원 등 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1천4백84부를 수거하여 정리한 것이다.

연세대학교 설문조사 팀은 동아리 '서베이(Survey)'에 의뢰하여 공동 조사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추출 방법은 '단단층과 확률표본 추출법'으로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특성에 대하여 표본을 뽑기전에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구분하여 분류된 계층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 본포도와 대학 정원을 근거로 7개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계층을 인문 사회 계열별 18개1명, 55.8%)과 자연과학 16개2명, 44.1%)으로 나누었다. 학년별 시각의 차이와 이해도, 관심도를 비교하기 위해 1학년(5백29명, 36.8%), 2학년(4백34명, 30.2%), 3-4학년(4백29명, 29.8%)로 나누었고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원생 남녀 비율에 맞게 남자(7백98명, 54.5%)와 여자(16백86명, 44.8%)로 분류하였다. 89년 경부에서 5-6조지(대학신문 이원화 조치)를 발표한 뒤 많은 대학에서 대학신문이 발행 중단, 지연되고 기사가 해적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번 학기에도 개교와 더불어 시경대, 한성대, 국제대 등의 학교에서 대학신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간지에도 크게 보도된 서강대의 경우 주간교수가 학생기자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신문물을 제작하여 학생기자들의 참여없이 신문이 나오게 되는 사태로 치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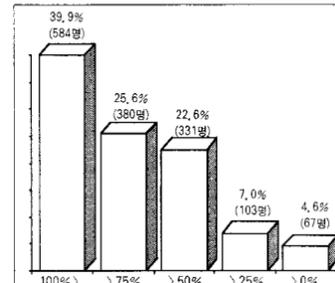
이런 설문조사는 이러한 대학신문의 진흥과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근이 제기된 바 있는, 게재개편 논의와 함께 충족되고 있는 대학신문의 위상과 체계에 대한 관심을 파악해 보는 데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연계될 학생들보다 대학신문의 관심이 높았다. 관심도 75%이상인 답변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비율은 51.8%이고



〈표 1〉 대학신문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대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학교장과 학생기자들 사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표 2〉 '편집자권 보장되어야... 88.1% 대학신문에 개방적·대중적 구조요구'

## 학생기자 편집자권 보장되어야... 88.1% 대학신문에 개방적·대중적 구조요구

지역계열은 42.8%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학년별 차이는 매우 인상적이다(Sig. 0.000 < 0.05) 75%이상 답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1학년 38.2%, 2학년은 53%, 3-4학년은 54.8%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신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질문은 주간교수와 학생기자의 역할을 묻는 것으로 편집계획, 기사 작성시 학생기자의 권한과 주간교수의 권한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주간교수의 지휘 감독하에 학생기자는 편집, 취재와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할 학생은 30명으로 2%에 해당하며 '학생기자는 편집에 자율성을 가지고 주간교수는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백54명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해 57.7%나 되었다. '주간교수는 학생기자의 자율적인 공헌을 최대한 보장하는 보조 역할을 하며 편집계획, 기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한 학생은 8백54명이었다(37.3%).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문제작과 경영에 학생기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주간교수와 협의를 거쳐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학년별 차이를 보면(Significance 0.0134 < 0.05) 인문사회 계열학생들이 자

신문에서 91.4%로 나타나서 84.6%를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해 볼 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지역 7개 대학신문사의 사지에 명시된 것에 의하면 편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베크로 독일산과 미국산이 있다는 보고가 되고

5% (2백73명), '안 읽는다'의 4.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줌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관성 없는 이유는 '내용이 유익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학년별 차이를 보면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와 3-4학년의 경우가 크게 달라진다. '학생기자들에게 편집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3-4학년은 86.7%, 89.1%로 답변한 반면 1-2학년은 27.3%만이 이에 응했다(Odds with D.F. 3)의 경우 50%에 육박하고 있어 신빙성은 필

신문사 운영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설문에서 89.2%(1천2백59명)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로운 형식의 운영위원회'가 수, 학생, 직원의 대표가 대학신문 운영위원회를 논의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해 기존 교수 중심의 '교무위원회'발식의 운영방식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운영위원회'는 1년에 2천만 원에서 크게는 2억원의 경비가 필요한 대학신문사의 예산 등 각종 행정에 관한 운영이 학대 3주체의 모든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최근 고대신문사에서 제기되었고 서강대보의 경우 사규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학생기자들과는 의없이 주간교수 개인의 일방적 제작, 인쇄, 배포금지 등으로 최근 한성대, 상신대, 동덕여대, 국제대 등이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대학신문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설문에서 65.3% (9백64명)가 '광고 역시 지면의 일부이므로 학생기자가 활용해야 한다'는

90년 서강대보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광고등 외 수익금'은 신문 1/3지면을 차지하는 광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향락적 상업광고보다는 올바른 대학문화 풍토조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은 학교측의 입장과 대립되면서 사실상의 함께 도하나와 갈등이 있어왔다.

그러나, '소비성 상품광고는 없다'는 결론은 학생들의 의견은 모자란 의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 질문의 경우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과 남성이 상품광고 게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있어 같지 않다(52.5%로 같은)는, 이것은 달리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95% 유이수준, P<0.05) 충청지역은 부정적 의견이 64.5%인데 반해 강원지역은 41.7%에 머물고 있다.

바치막으로 최근 서강대에서 주간교수와 단독적인 신문제작에 대한 질문에서 88.3%(1천3백명)의 학생들이 학생기자들의 참여없이 학교당국에 의해 제작되는 신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4.1%(60명)만이 '찬성한다'고 대답해 서강대 문제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성별 지역별 차이를 뛰어 넘어 학생기자들의 편집자권력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강대 등 학생기자들의 배제 속에서 주간교수와 단독적인 제작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문제작을 중단시키고 기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는 실존적인 독자들의 의사

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전대기련 대학신문기자회 주 위원회〉

## 朔風

### 외제바람에 흥역 않는 금수강산

충만한 결투만이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온 어시어(食肉魚)가 우리의 토종 물고기들을 마구 먹어치워 토착 어종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수산원이 들어오기 위해 어종은 정으로 보고된 것만도 수산종을 넘는다. 이를 들을 열거해보자면 북태평양 아열 편어를 할당하기 위해 들어 가져왔던 도잉 연어나 일제 강점기 때에 대한 인식: 부패했던 현대에 '양질의 들어온 무지개 송어와 한여는 고령다치더다(37.6%)'다. 로종 개구리를 한 입에 먹어치우는 식 개구리는 자연상태에서 1.5kg 내외의 것도 발견되고 있는데 심지어 뱀을 먹어 치우는 장엄이 특이한 적도 있어 생태계 파괴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최근에는 길이가 세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국산 비둘기'가 '일본산'을 위협할 수 있는 어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대중적인 어종인 붕어와 잉어의 경우 일제 강점기 때에 도입된 개구리, 프랑크스 오리를 연상케하는 식용 달걀이 좋은 양식 종에 유출되어 천적이 없는 산과 들에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로종 개구리를 한 입에 먹어치우는 식 개구리는 자연상태에서 1.5kg 내외의 것도 발견되고 있는데 심지어 뱀을 먹어 치우는 장엄이 특이한 적도 있어 생태계 파괴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최근에는 길이가 세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국산 비둘기'가 '일본산'을 위협할 수 있는 어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대중적인 어종인 붕어와 잉어의 경우 일제 강점기 때에 도입된 개구리, 프랑크스 오리를 연상케하는 식용 달걀이 좋은 양식 종에 유출되어 천적이 없는 산과 들에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로종 개구리를 한 입에 먹어치우는 식 개구리는 자연상태에서 1.5kg 내외의 것도 발견되고 있는데 심지어 뱀을 먹어 치우는 장엄이 특이한 적도 있어 생태계 파괴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최근에는 길이가 세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 인간진화의 경명

## 카페트 思考를 벗어버린 대청마루 思考

# 脫 固·定·觀·念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한국형 신화'를 탄생시켰습니다.

## 력키금성

력키금성 기업문화 '脫' 시리즈-②  
금성 한국형 물결에 청초기 개발편

력키금성의 진취적인 기업문화가 창조적 경성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형 물결에 청초기- 고정된 사고를 벗어던지고 우리의 생활문화에서 찾아낸 새로운 규범의 지혜입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굴함이 없는 창조적 젊은 인재들-력키금성의 진취적인 기업문화속에서 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금성 한국형 물결에 청초기 기업 주원 연구원 황 철  
우리의 생활문화와 청초기를 결부시켜 정육사신 화제의 리더가 한국형 물결에 청초기-이 창조적 청초기를 개발한 황철 연구원은 기존 청초기에 대한 고정된 사고를 거부한 진보적의 주인공이다. "계 획성은 바뀌었지만, 배신 없이 이걸로 넘어가고자 한다"고, 그러나 배신 개발팀이 결핵박사가 되어야" 연구와 더불어 현실의 정황 또한 소중히 하는 주인공이라는 행동과 연구자이다.